

유제인 회장, ESCO마트 및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참석

유제인 회장, ESCO마트 및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참석

유제인 회장, ESCO마트 및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참석

우리 협회는 지난 9월 27~30일간 진행된 에너지전시회에 맞춰 진행된 ESCO마트에 참석했다. 27일 개최된 ESCO마트에서 유제인 회장은 “에너지절약은 기름을 생산하는 것과 같다”며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유 회장은 28일 COEX에서 열린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시 30달러 미만이던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도 하락하여 우리경제가 추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우리경제가 잘 버텨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에너지절약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자금 이용 ESCO사업실적 인정기준 마련

협회는 현재 민간자금을 이용한 ESCO사업을 기존 사업실적에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자금을 이용한 ESCO사업을 실적으로 인정할 경우 기존 정부지원자금에만 의존한 ESCO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정부자금이용실적이 없는 업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또한 자기자본 및 금융자본을 활용, 제한없이 ESCO사업을 진행하여 에너지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협회는 이러한 민간자금 이용한 ESCO사업 기준에 대한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의는 협회 사무국 (02)728-4401로 하면 된다.



ESCO투자사례발표회 개최

ESCO투자사례발표회 개최

ESCO투자사례발표회 개최

협회는 지난 9월 28일 'ESCO투자사례발표회' 를 개최했다. 이범용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ESCO사업이 성공적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로 자리잡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검증을 거쳤다"며 "에너지사용자의 궁금증을 투자사례가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성림산업, SK, 이앤이시스템, 삼성에버랜드를 비롯, ESCO업체들이 수행했던 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한 주제는 펌프장의 인버터 적용사례(김종연 이사), 용연하수처리장 잉여가스 재활용 사례(최진영 부장), 반도체 공정에서의 수축열 적용사례(강한기 이사), 건물 및 아파트 열병합발전시스템 소개(고진규 팀장) 등으로 추후에 ESCO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정점현 상도동 건영아파트 대표자회장은 공동주택 열병합발전 추진사례를 발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SCO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우리 협회는 ESCO정책과 제도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각 ESCO업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ESCO업체와 협회의 목표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는 업체 또는 개인은 ESCO협회 사무실로 연락하면 된다.

